

다시 달리는 LNG선, 오르게 될 신조선가지수

코멘터리

상승을 고대하는 신조선가지수는 또 보합...

① 지난주 현대중공업의 VLCC \$92m 수주로, 지수 상승을 기대했지만 지수는 또 128p 제자리였습니다. 다만 VLCC가 지난주에도 \$88m으로 \$0.5m 올랐고, 장차 \$90m대로 추가 상승할 것이기에, 조만간 지수 상승을 기대해봅니다. 또한 LNG선 저가 수주가 끝나, LNG선 신조선가가 상승도 지수 상승에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LNG선 수주가 다시 재개됩니다.

포세도니아 박람회에서

② 대우조선해양의 단골 Maran Gas는 옵션을 행사해 LNG선 1척과 FSRU 1기를 추가 계약했습니다. 관심의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③ 올해초 대우조선해양에 2척을 투기발주한 Alpha Gas도 옵션을 행사해 1척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④ 현대중공업은 터키 Botas로부터 LNG-FSRU 1기를 추가 수주했습니다.

그리스 선주 2곳이 LNG 시장에 신규 진입합니다.

⑤ 그리스 Marinakis는 LNG선 2척 발주를 한국 BIG3와 협의 중이라고 전합니다.

⑥ 그리스 Latis도 용선 계약에 기반해, LNG선 시장에 데뷔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2011년처럼 투기발주가 몰리고, 그리스 선주들이 LNG선 시장에 진입하는 모양새입니다. LNG선 시장은 3년~5년 달릴 것입니다.

이렇듯 LNG선 시황이 맑기기에, 신조선가...

⑦ Maran Gas의 John Angelicouassis는 포럼에서 최근 \$180m 대의 LNG선 신조선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며, 1년 내에 다시 2억\$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조선가지수는 곧 오를 것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또 6월에도 수주를 추가합니다.

⑧ 터키 Yasa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4척을 발주했습니다.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35m 또는 사측이 밝혔듯 신조선가가 그 이상으로 올랐을 수 있습니다.

⑨ 팬오션도 현대미포조선에 1,800-teu 피더 2척을 발주했습니다. 피더선은 현대미포조선의 도크 생산성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크기의 배인데, 올해 일본에서 6척을 포함해 8척을 수주했습니다.

한달 정도 힘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좋은 신호들을 바탕으로 조선업 종 비중확대 의견을 견지합니다.

주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LNG 수주

- ▲ 대우의 단골고객 Maran Gas, LNG선 1척, LNG-FSRU 1척 옵션 행사
- ▲ Maran Gas의 자매 Alpha Gas도, DSME LNG선 1척 옵션 발주
- ▲ 터키 Botas, 현대중공업에 FSRU 1기 발주

LNG 시장 신규 진입

- ▲ 그리스 Marinakis, BIG3와 LNG선 발주 협의 중
- ▲ 그리스 Latis의 Latsco도 LNG선 투자 의향 밝힘

LNG 시황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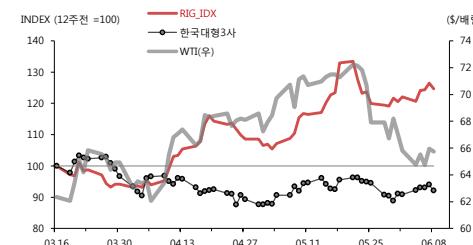
- ▲ John Angelicouassis 1년 내에 LNG선 신조선가 2억\$ 상회할 것
- ▲ Petronas, Shell의 LNG Canada 지분 25% 인수: 사업 탄력
- △ Hoegh, 중국에 FSRU 1기 용선 계약 체결
- △ 필리핀 Phoenix Petroleum, CNOOC와 함께 LNG 터미널 구축 추진

미포 수주 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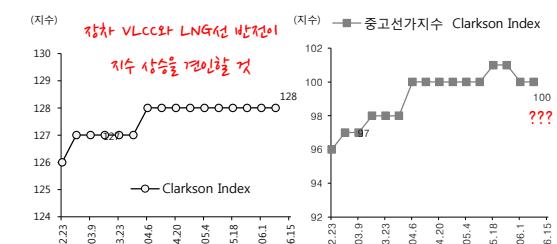
- ▲ 터키 Yasa Shipping → 미포, MR탱커 4척
- ▲ 팬오션 → 미포, 1,800teu 2척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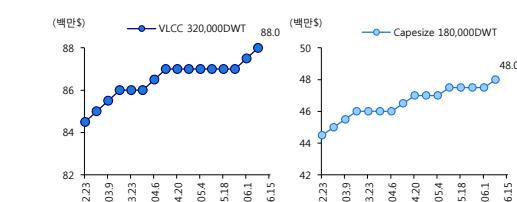
▶ 유가, RIG PLAYER, BIG3



▶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지수: 안타깝게도 또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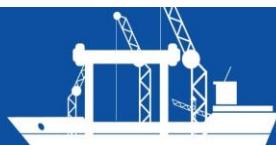


▶ 대형 탱커, 벌크 신조선가 상승



▶ 4월~5월까지의 수주 목표 대비 IR 발표 수주의 달성을 + 현대상선 20척 + LNG+FSRU 4척

조선사	선종	2017 목표		2017 수주 마감		2018 목표		2018 수주		비고
		백만\$	달성률	백만\$	달성률	백만\$	달성률	백만\$	달성률	
현대중공업	해양	1,600	16%	8		262		1,600	-1%	0 .9
LNG + FSRU										1
LPG				4						4
컨선				7						
탱커				19						4
멀크				10						
HHI 합	HHI합	4,300	109%	48	4,702	6,800	14%	9	923	~4월
현대상선	컨선			4						7
탱커				22						11
LNG선										3
가스선				4						2
기타				9						2
HS 합	HS합	2,500	113%	39	2,826	3,400	82%	25	2,781	~4월
6,800	111%	87	7,528	10,200	36%	34	3,704			
현대미포조선	LPG			51						2
PC선				9						11
RORO										6
컨선										
비나선	벌크			4						
현대미포 합	1,600	145%	64	2,324	3,000	2%	19	66	~4월	
삼성중공업	플랫폼			1	1,300			0	0	
FLNG				1	2,500	2,700		0	0	
LNG + FSRU				5	800			5	900	
컨선				6	800			8	800	
탱커				15	1,500			11	600	
SHI 합	6,500	106%	28	6,900	8,200	28%	24	2,300	~5월	
대우조선해양	LNG + FSRU			4				8		
컨선				5				0		
탱커				15				10		
특수선				2				1		
DSME 합	5,500	40%	26	2,210	7,300	32%	19	2,350	~4월	
BIG3		17,900	79%	102	14,074	23,900	23%	52	5,564	
BIG3 + 삼호 + 미포		22,000	87%	205	19,224	30,300	28%	96	8,411	

**ASP & 실적관련(국내외)****▷ 또 선종별 선가 올랐지만, 지수는 제자리**

- 케이프와 파나마스 벌크선이 올랐고, 텅커도 VLCC가 또 \$0.5m 올라 \$88m를 기록하는 등 VLCC와 수에즈막스가 상승했지만 지수는 128p로 제자리
- 중고선가도 파나마스 벌크선이 \$24m으로 \$5m으로 올랐지만 100p로 보합
- >> 최근 VLCC 체결가격이 \$92m 이상이어서, 당분간 VLCC 신조선가는 계속 상승 조정될 예정입니다.
- >> LNG선 신조선가만 올라준다면, 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John Angelicouassis ▶ 1년 내에 LNG선 신조선가 2억\$ 상회할 것

- LNG선 신조선가 상승의 이유로, 한국의 숙련공 은퇴 및 인원 감축 등의 이유를 들며
- 올해 상반기 \$180m대의 LNG선 신조선가는 터무니 없다(Ridiculous)고 평가: 이는 2004년의 Steam vessels 수준에 불과
- 2015년말~2016년말의 LNG선 신조선가는 각각 \$204m~\$197m이었음
- LNG선 신조선가의 적정 가격은 \$200m 이상이며, 올해이던 내년이던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베풀할 수 있다고 언급
- 같은 세션에서, George Procopiou도 후판가격 상승, 아시아 통화 강세로 신조선가는 상승해, ...
- ... 전선종이 바닥 대비 10% 올랐고, 향후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it is not a secret)이라고 평가

외신 보도들- 뉴스/FACT > **당사 의견****▶ 해양 / 시추****△ Prelude FLNG, LNG선과 첫 hookup**

- 얼마전 호주에 도착한 137k-cbm Gallina(2002년 건조) LNG선이 prelude FLNG와 hookup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실제 hookup이 아니라 단순 berthing test라는 관측!
- 3.6MTPA 가스, 1.3MTPA의 컨덴세이트, 0.4MTPA의 LPG 생산용량의, 120억\$짜리, 60만톤의 prelude FLNG는
- 2017년7월 싸이트에 도착해, hookup 및 commisioning에 1년이 소요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Shell은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제공하지 않음
- 가동 시, LNG선을 개조한 천해의 Golar LNG(1.2MTPA)의 Hilli Episeyo에 이어 두번째로 2018년에 가동되는 FLNG가 됨
- Shell이 67.5%, INPEX가 17.5%, KOGAS 10%, 대만 CPC가 5% 지분 투자

▽ Woodside, Pluto 프로젝트 EPC사로 TechnipFMC 선정

- Woodside Petroleum은 TechnipFMC에 Pluto 프로젝트 계약
- 기존 Pluto Alpha gas production에 water handling 모듈을 설치
- >> 지난달 Woodside는 Broswe, Scarborough, Pluto-2의 제작을 중국에 맡기겠다고 밝혀, 큰 파장을 던진 바 있습니다.
- >> TechnipFMC는, BP의 Tortue FPSO를 중국 COOEC와 함께 따낸 엔지니어링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 >> 그러나 이르면 7월 Rosebank에서 한국 조선업의 반전, 그 다음 사우디 LTA 선정을 기대해봅니다.

(05월4주) ▽ Woodside도 중국 야드에서 구조물 제작 계획

- 호주 Woodside Petroleum은 중국 야드에서의 해양구조물 제작을 호의적으로 모색한다고 밝힘
- 향후 Scarborough와 Browse 필드 개발, Pluto LNG 2번째 train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구조물 시공(Construction)에 있어서, 중국 야드는 가격에서 경쟁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품질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 10년 전 한국 조선사들의 해양 진입 스토리와 유사하다고 설명
- 1)Scarborough: FEED는 2019년 1분기, FID 2020년초, 생산개시 2023년, 300mcf/d, 4만톤 탑사이드의 semisub와 신규 LNG Train의 사업규모는 110억\$
- : Woodside는 내년초 시작할 Scarborough의 FEED 계약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힘
- 2)Pluto LNG의 2번째 train: 300mcf/d, 4~5MTPA, 모듈형태로 제작/설치 예정
- : 기존 Pluto LNG는 FosterWheeler와 WorleyParsons가 JV로 참여
- 3)Browse: 2개의 대형 FPSO를 기존 North-West Shelf LNG 설비와 900km 파이프라인 연결 예정, 150억\$ tkdjq dPtkd
- 입찰에 다수 제작사보다는 2~3개로 압축해 경합을 진행할 예정이며,
- Hull과 Topside 제작을 분리해, 중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힘
- Woodside의 대표 Coleman은 "과거 한국 대형사들의 뒷이었지만, 지금 한국은 원가 구조를 변화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다른 곳(중국)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언급

▶ LNG**▲ 대우의 단골고객 Maran Gas, LNG선 1척, LNG-FSRU 1척 옵션 행사**

- 대우조선해양의 단골 John Angelicouassis의 Maran Gas가 옵션을 행사해 2척 추가 계약: FSRU 1기, LNG선 1척
- 이로써 동사의 LNG선 잔고는 9척으로 확대, 기존 발주 1척(2017년)은 2020년, 이번 옵션 행사 2척은 2020년 하반기 인도 예정
- 관심의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음
- FSRU는 작년 2월 발주한 계약(2020년 인도)에 딸린 옵션인데, 1호선의 인도도 2020년 3월 정도로 당겨질 전망
- 자매인 Anna Angelicouassis의 Alpha Gas도, 최소 1척의 LNG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함: 오후에 Alpha Gas의 옵션 행사 보도 업데이트됨, 아랫 꼭지
- >> Jonh Angelicouassis는, 얼마전 포세도니아 포럼에서, LNG선 신조선가가 \$200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Maran Gas의 자매 Alpha Gas도, DSME LNG선 1척 옵션 발주

- 올해 3월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2척을 투기발주한 Alpha Gas도
- 포세도니아 행사 기간에, 대우조선해양에 173,400-cbm LNG선 1척을 추가 계약함
- 이로써 Alpha Gas의 LNG선 선대는 2015년 건조 160k 1척을 포함해 총 4척이 됨

▲ 그리스 Latsco, LNG선 투자 의향 밝힘

- PC선 및 LPG선 전문 선사 Latsco는 최근 Posidonia meeting에서, 장기 옵션에 기반한 LNG선 투자에 관심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올해 1분기 16척의 LNG선 발주 중 12척이 투기 발주



▲ 그리스 Marinakis도 LNG선 시장 투자 검토

- Evangelos Marinakis도 LNG선 투자를 심사숙고 중
- 그의 Capital Maritime & Trading은 한국 BIG3와 투자협의 중이라는 풍문이 떠듬: LNG선 2척 + 옵션
- 발주 시점이나, 사양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음
- 가장 최근 그리스 선주의 신규 LNG선 시장 진입은 Andreas Martinos의 Minerva Maritime이 대우조선해양에 투기발주한 173k-cbm LNG선 2척
- >> 포세도니아 행사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기존 LNG선에 투자해본 적 없는, 또다른 그리스 선주들도 투자의향을 밝힙니다!

▲ 터키 Botas, 현대중공업에 FSRU 1기 발주

- 터키의 Botas는 2020년 인도로 FSRU 1기를 용선발주: 투입처로 2곳이 유망
- 기존 터키에서는 건설사들인 Kolin & Kalyon이 현대중공업에 2019년 인도로 FSRU 1기를 발주한 바 있음
- 또한 터키에는 2개의 육상 LNG 수입터미널이 있지만, 대체로 주진 중인 것으로 전함
- 최근 MOL의 263k-CBM FSRU가 Doryol port에서 작년부터 가동 중이지만, 최근 홍콩 CLP Power에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2020년 이동할 예정
- >> 위의 FSRU-Max를 대체할 FSRU 발주를 준비 중이라는 풍문이 있었는데
- >> 이번 발주가 이를 대체하는 것인지, FSRU-Max는 따로 진행 중인 것인지는, 보도 문맥에서 잡아내기 힘듭니다.

(02월3주) ▲ 터키 국영 Botas, 대형 FSRU 발주 초기 협의 시작

- Botas는 터키의 3번째 FSRU가 될 건조 협의를 조선사들과 시작: 투입 지역 등 상세 내역은 미공개
- 3번째가 아니라 FSRU 2기 중 1기가 용선계약에 앞서 이를 대체하는 투자라는 설도 있음: 지난주 도착해 3년 용선 예정인 MOL FSRU(273k CBM)
- MOL FSRU는 초기 우루과이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되었지만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터키에 투입되었지만, 이후 홍콩의 CLP Power와 후속 용선계약(2020년부터)을 맺게 됨
- 터키의 또다른 FSRU는 로컬 Kolin & Kalyon에 의해 발주한 Etki LNG 프로젝트의 FSRU이며, 이 투자 결정에서 향후 2개의 FSRU에 더 투자하겠다고 정부는 밝힌바 있음

(17년11월) ▶ MOL의 FSRU, 카타르 경유해 터키에 도착

- DSME가 건조해, 9월에 명령식을 하고, 10월초에 출항한 263k FSRU가
- 이번주 카타르에 도착할 예정이고, 이어 터키 작업 현지로 이동 예정
- 터키 Botas는 Gatargas와 3년간 1.5MTPA 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
- 이 FSRU는 터키의 4번째 LNG 수입 터미널이며, 이로써 터키의 LNG 수입 캐파는 14.5MTPA에 달함

(08월4주) △ DSME 건조 중인 FSRU-MAX, 용선처 터키에 확보

(6월2주) △ MOL, DSME에서 건조 중인 FSRU-MAX 11월 인도키로: 용선처 선정 지연

△ Hoegh, 중국에 FSRU 1기 용선 계약 체결

- 노르웨이 Hoegh는 중국 최대 가스 수입사 CNOOC Gas & Power와 신조 FSRU의 3년 + 옵션 1년의 투입 용선 계약 체결
- FRSU(Hoegh Esperanza)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4월 인도되었고, 곧 Tianjin LNG 터미널에서 가동 예정
- Hoegh는 유일하게 중국에서 FSRU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8개의 FSRU를 운영 중이며, 2기를 건조 중
- 한편 중국의 1Q18 LNG 수입은 12.7MT로 전년동기대비 +61% 성장세를 시현 중

△ 필리핀 Phönix Petroleum, CNOOC와 함께 LNG 터미널 구축 추진

- 필리핀 선주 Dennis Uy는 중국 CNOOC와 함께 LNG 수입 터미널을 도입키로 함
- 육상 수입 터미널일지, FSRU일지는 미정: 10개 이상의 국내외 회사들이 지분 투자를 희망 중
- CNOOC는 중국 1위, 세계 3위의 LNG 수입회사
- 또한 Shell도 필리핀에 LNG 수입터미널 건설을 도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 값싸고, 빠르고, 편리한 made in KOREA, FSRU를 도입하기를 기원합니다.

△ Petronas, Shell의 LNG Canada 지분 25% 인수: 사업 탄력

- 말레이시아 Petronas는 Shell이 추진 중인 LNG Canada의 지분 25% 인수: Shell의 잔여 지분은 40%, 나머지는 PetroChina 15%, Mitsubishi 15%, 한국 KOGAS 5%
- 322억\$의 프로젝트는 6.5MTPA x 2개 train으로 구성되며, 지난 4월 Fluor, JGC에 EPC 발주
- FID는 2018년이지만, 에너지 가격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전망
- Petronas는 작년 7월부터 캐나다의 Pacific NorthWest 프로젝트도 재 추진하기 시작함
- 캐나다는 52TCF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해,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LNG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될 전망

▶ 기타: 탱커 시황 기대감

△ VLCC 외의 중소형 탱커 전망 밝다는 의견

- 최근의 발주 레일리로 VLCC의 잔고/선대 비율은 16%까지 증가
- 그러나 유력 선박 중개인 Gibson에 따르면 LR1은 7%, 수에즈막스는 9%, MR탱커는 10%에 불과해 투자유망하다는 의견 피력
- MR의 경우 작년 70척이 투자되었지만, 올해 26척이 발주되었는데, 2014년~2016년의 인도 규모에 비해 올해와 내년의 인도량은 아주 작음

△ Marinakis, 다수 VLCC 해체 시사

- 삼성중공업에서 8척의 VLCC를 건조 중인 Marinakis의 Kalogirators는, 보유 VLCC 선대 다수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신이 VLCC를 발주한 \$80m 대비 이미 \$90m으로 신조선자가 크게 올랐기에 작년의 신조 투자는 좋은 결정이었으며
- 단기 VLCC 시황은 어렵지만,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

△ Top Ship, \$96m 규모 탱커 용선 계약 체결에 추가 +60% 이상 상승

- Top Ship은 자회사 Pistiolis가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의 3년 용선 계약을 체결: 운임은 \$25천/일로 추정됨
- 작년 현대중공업에 발주해, 2019년 4월~5월 인도 예정: 스크러버 장착 비용은 2년 안에 회수할 것으로 추정

△ CMA-CGM, 1년 사이 4번째 Feeder 컨선 매입

- 2007년 건조 1,350teu를 \$9m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짐
- 올해 1,118teu 2척(2002년, 2003년 건조)을 척당 \$4m에 매입했고, 작년에는 1,100teu(2006년 인도)을 \$3.8m에 인수한 바 있음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④ Yasa Shpg. Industry → Hyundai Mipo, PTK(50k) 4척

- ▲ 터키 Yasa Shipping → 미포, MR탱커 4척
- 선대확대로 현대미포조선에 50k-DWT MR탱커 4척 발주: 2019년 6월~7월 인도 단납기
-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포의 최근 수주 MR탱커는 \$42m
- >> KOTC의 특수 스펙이 \$42m이었습니다. \$35m 이상이면 양호한 신조선가일 것입니다.

⑤ Pan Ocean → Hyundai Mipo, CONT(1,800-teu) 2척

- ▲ 팬오션 → 미포, 1,800teu 2척
- 선대확대 및 기존 용선 선박 교체용으로, 현대미포조선에 1,800teu 방콕-max 2척을 발주
- 2019년 말~2020년 초 인도이며, 신조선가는 \$23m
- 올해 현대미포조선은 Nissen Kaiun에서 4척, 그리고 최근 일본 Itochu Corp.로부터 피더선 2척을 수주한 바 있음
- >> 미포의 1,800teu는 MR탱커와 함께 도크에 들어가 도크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줄 수 있답니다.
- >> 이로써 올해 8척의 컨선을 받았습니다

⑥ Maran Gas Maritime → Daewoo (DSME), LNG(173k) 1척

⑦ Maran Gas Maritime → Daewoo (DSME), FSRU(173k) 1척

- 위의 LNG 섹션 참조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Maran Gas의 자매 Alpha Gas도, DSME LNG선 1척 옵션 발주

- 위의 LNG 섹션 참조

▲ 그리스 Marinakis, BIG3와 LNG선 발주 협의 중

- 위의 LNG 섹션 참조

▲ 그리스 Latsis의 Latsco도 LNG선 투자 의향 밝힘

- 위의 LNG 섹션 참조

△ TEN → 대한조선, 115k-DWT 탱커 2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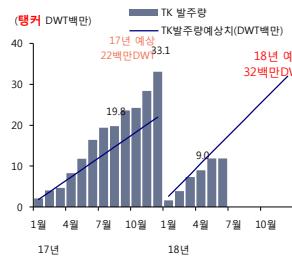
- 뉴욕 상장사 Tsakos Energy Navigation은, 올해 3월부터 발주 협상이 알려져오던, 115k 탱커 2척을 대한조선에 발주: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음

△ 대우조선해양, 포세도니아 행사에서 VLCC 2척 수주

- Alpha gas의 LNG선 1척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선주로부터 VLCC 2척도 수주: 2020년 1분기 인도
- 지난주 알려진 Geggenheim Capital의 Maritime Partners로 추정됨 (06월1주) △ 미국 Geggenheim Capital, DSME에 VLCC 2척 추가
- Geggenheim Capital의 자회사 Maritime Partners LLC가 계약 주체
- 2달 전 300k DWT 2척을 발주했고, 지난주 2척을 추가 발주
- 앞의 2개 호선은 2020년 1분기, 뒤의 2개 호선은 2020년 중반 인도
- 신조선가는 공개되지 않았음
-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고려해운에서 2척, 그리스 Pantheon Tanker에서 2척, Hunter Group에서 7척, 그리고 이번 Maritime에서 2척+2척으로 총 15척의 VLCC를 수주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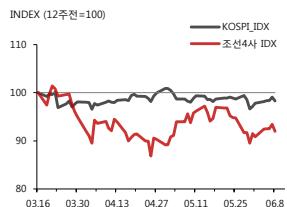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8년05월3주								
BIG6	Hyundai Mipo	18.5.11	Unknown	Niovus Shipping Co.	PTK	50k DWT	2019	1
	Daewoo (DSME)	18.5.15	유럽	Hunter Tankers	TK	300k DWT	2020	3
중국	PaxOcean Zhuhai	18.3.1	아시아	PSA Marine (Pte) Ltd	OFF-기타	4k HP	2019	1
	Haitong Offshore Eng	18.1.1	중국	Unknown Chinese	PTK	8k DWT	2019	1
	Dayang Offshore	18.5.9	한국	Shinsung Shpg. Co.	BULK	3k DWT	2020	3
18년05월4주								
중국	Taizhou Sanfu	18.5.25	아시아	Meghna Marine	BULK	64k DWT	2020	1
	Jiangsu New Hantong	18.2.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81k DWT	2019	2
	Chengxi Shipyard	18.5.17	북미	CSL Group	BULK	40k DWT	2020	1
	GSI Nansha	18.1.1	아시아	CSSC Shipping (HK)	PTK	76k DWT	2019	2
	Zhejiang Zengzhou	18.1.23	유럽	Tom Worden Schiffs	BULK	7k DWT	2019~2020	4
18년05월5주								
BIG6	Samsung HI	18.5.31	아시아	AET Tankers	TK	153k DWT	2020	4
		18.5.30	유럽	GasLog	LNG	180k cu.m.	2020	1
	Daewoo (DSME)	18.5.31	유럽	Guggenheim Capital	TK	300k DWT	2020	2
중국	Shanghai Waigaoqiao	18.5.1	한국	Polaris Shipping Co	BULK	180k DWT	2020	1
	Fujian Mawei SB	18.3.23	유럽	MarLink	CONT	1k TEU	2019	2
	AVIC Weihai Shipyard	18.5.25	Unknown	Stena RoRo AB	FERRY	1k Pass.	2021	1
	Dayang Offshore	18.2.1	중국	Unknown Chinese	TK	8k DWT	2019	1
	Aulong SB Co	18.1.1	중국	Unknown Chinese	FERRY	#VALUE!	2019	2
18년06월1주								
BIG6	Hyundai Mipo	18.6.6	한국	Pan Ocean	CONT	2k TEU	2019~2020	2
		18.5.11	유럽	Yasa Shpg. Industry	PTK	50k DWT	2019	4
	Daewoo (DSME)	18.6.6	유럽	Maran Gas Maritime	LNG	173k cu.m.	2020	1
중국	Jiangsu New YZJ	18.5.1	Unknown	Unknown	BULK	208k DWT	2020	2
	Jinling Shipyard	18.6.6	유럽	Grimaldi Group	RORO	8k Lane m.	202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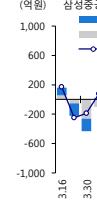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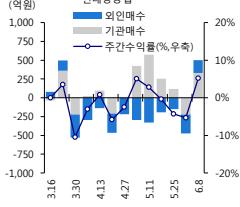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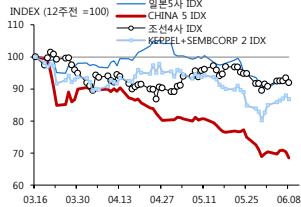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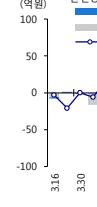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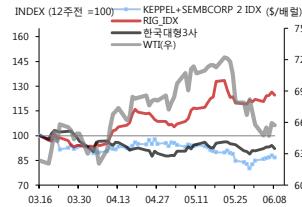
▶ 조선6사 수급



▶ 조선업 현증일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국내 보도****▶ 공통 보도****▲ 현대상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대우조선·삼성重 건조**<http://lnr.li/UfzW0>

초대형 선박인 2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급 컨테이너선 건조는 대우조선해양(7척)과 삼성중공업(5척)이 미주 동안과 유럽 노선에 투입예정인 1만4000TEU급 선박 8척은 현대중공업이 건조 2만3000TEU급 12척은 2020년 2분기 인도가 가능한 대우조선해양 7척, 삼성중공업 5척을 선정 1만4000TEU급 8척은 2021년 2분기 납기 가능한 현대중공업으로 결정 최근 후판가격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조선사와 빠른 시간안에 LOI(건조의향서)를 체결할 방침

▷ 현대상선, 초대형선 발주 '자금조달' 문제 없나<http://lnr.li/ddq5A>

신조 발주를 위한 자금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 이번 신조 발주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 현대상선이 계약금 10%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해양진흥공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선박 잔금 90% 중 해양진흥공사가 30%를 후순위로 채워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 및 정부가 신용공여 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차입할 계획 현대상선은 오는 2022년까지 100만TEU 선대 구축을 목표함

▶ 현대중공업 보도**▷ DGB금융·현대重, 하이투자증권 매매계약 기한 9월말로 연장키로**<http://lnr.li/ysMzw>

GB금융은 지난해 11월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하이투자증권 주식 85.32%를 4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 3월말까지 거래를 종결하기로 작년 말 하이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시작 박인규 DGB금융 전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승인이 차일피일 늦어져 옴

▽ 현대重, 울산 조선소서 하청노동자 작업 중 추락해 '중상'<http://lnr.li/wFIGP>**▶ 삼성중공업 보도****▲ 한국선급 컨소시엄, 미국서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득**<http://lnr.li/bYKBR>

한국선급은 지난 5일 컨소시엄을 통해 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제품이 미국 정부의 형식승인을 취득했다고 8일 밝힘 미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별도로 자국 법에 따라 미국해안경비대(USCG)로부터 승인 받은 BWMS에 의해 관리된 선박평형수만 사용 가능 한국선급은 지난 2년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양생태기술연구소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삼성중공업 및 테크로스 제품이 미국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 현재 테크로스를 포함해 USCG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7개뿐 테크로스에 이어 USCG에서 삼성중공업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보고서의 검토도 마무리될 예정

▶ 대우조선해양 보도**▼ 대우조선 노조, 금속노조 가입 결의...투표 71% 찬성**<http://lnr.li/Kde6O>

노조는 7~8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별노조 전환투표를 실시 조합원 5천883명 중 5천207명이 투표해 3천704명(71.3%)이 찬성 대우조선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그동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우조선 매각 등 향후 구조조정에 대비하고자 더 강한 투쟁력을 가진 금속노조와 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 과거 3차례 금속노조 가입 찬반투표를 했으나 무산된 바 2001년, 2004년, 2006년에 금속노조 가입 찬반투표를 했으나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

**▶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SPP조선 사천조선소부지 팔린다**<http://lnr.li/88suV>

사천조선소가 유일디앤티와 두림으로 구성된 유일컨소시엄에 매각: 매각가격은 484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 조선업을 위해 부지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인수·합병(M&A)을 포기한 셈

사천조선소는 2016년 3월 SM그룹에 매각하려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불발되고, 지난해 2월 최종선박을 인도하면서 조선소 운영이 중단
채권단은 통영조선소와 율촌공장의 자산매각도 추진 중: 감정가는 각각 500억원

채권단 관계자는 "정상기업도 RG 발급이 어려운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SPP조선은 더더욱 어렵다"며 ...

... "사천조선소의 최종 선박 인도 후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M&A를 통한 채권 정산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

이란 최대 국영선사 이리슬파의 9200만달러(984억원) 규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추가 손실은 줄임

앞서 SPP조선은 파생상품 손실(8000억원)과 신규 계열사 투자 실패(4000억원) 등으로 모두 1조2000억원의 영업외손실을 냈고, 지난 2010년 5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
채권단이 2012~2015년에 투입한 신규자금은 1조4050억원: 채권단은 이후 고성조선소 매각(274억원) 등으로 총 3562억원의 채권을 회수

▲ 삼강에스엔씨, 싱가포르 선사와 290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http://lnr.li/Mifpr>

초대형 선박수리 조선소 삼강에스엔씨는 턴키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선박 개조 시장에 진출

삼강에스엔씨의 종속회사 삼강에스엔씨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유력 선사와 선박배기기스 저감장치인 '스크리버' 설계·제작·설치 등 턴키 공급 계약을 체결
계약 규모는 선박 6척, 약 2700만달러(한화 약 290억 원)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

관계자는 "싱가포르 선사 측이 운영하는 60여 척에 대해 추가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

삼강에스엔씨 관계자는 "스크리버 설치 선박은 269척으로 현재 운항 선박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22년 2000척, 2025년 4000척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두산엔진, 재무적 융통성 소멸...신용등급 BBB로 강등<http://lnr.li/WIKvR>

나이스신용평가는 두산엔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

최근 두산엔진의 인적분할과 매각이 완료되면서 두산밥캣 주식을 활용한 재무적 융통성이 소멸된 점을 등급평가에 반영

당분간 재무부담 대비 저조한 수익창출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인적분할 이후 두산엔진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총차입금은 약 15배 수준으로 수익창출력 대비 차입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

△ 두산엔진,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에 친환경 선박엔진 달아 기회 잡나<http://lnr.li/oP7c6>

현대상선의 새 컨테이너선이 LNG추진선으로 건조된다면 두산엔진이 조선3사로부터 이중연료 저속추진엔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두산엔진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

... 정부가 해운사 및 조선사 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 우선순위로 고려

두산엔진은 아직까지 대형 컨테이너선용 이중연료 저속추진엔진을 공급한 적이 없음

▷ 두산엔진, 고영열 신임 대표이사 선임...사명 HSD엔진 변경<http://lnr.li/1Kbn8>

고영열 전 대우조선해양 사업총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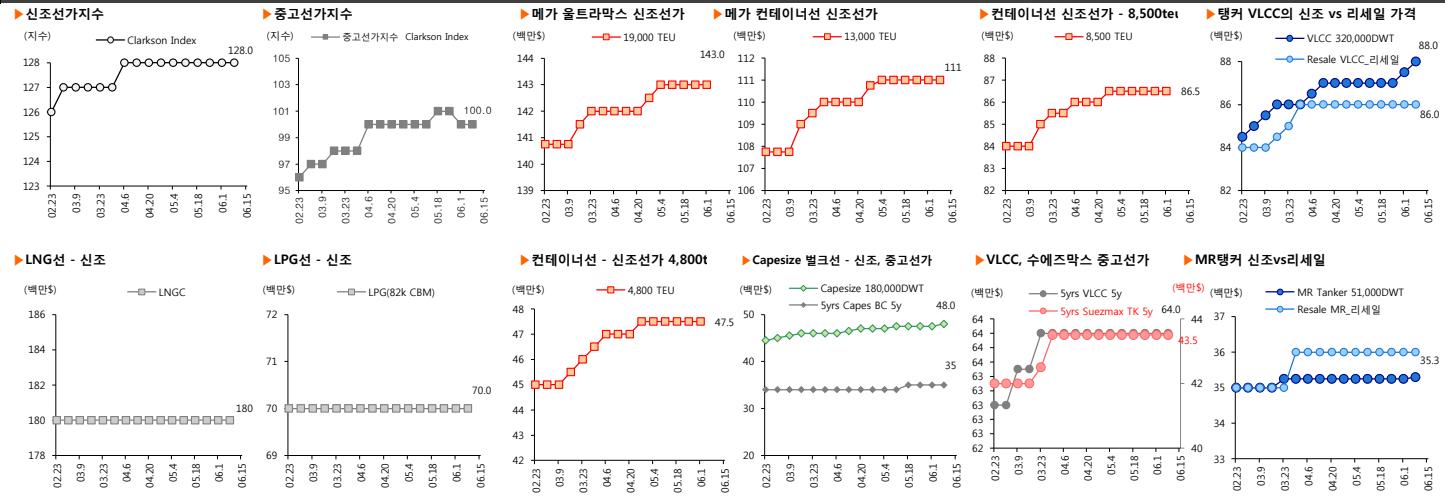
기존 김동철, 김일도 대표이사는 사임

▷ 두산, 두산엔진과 상표권 거래계약 해지<http://lnr.li/RRK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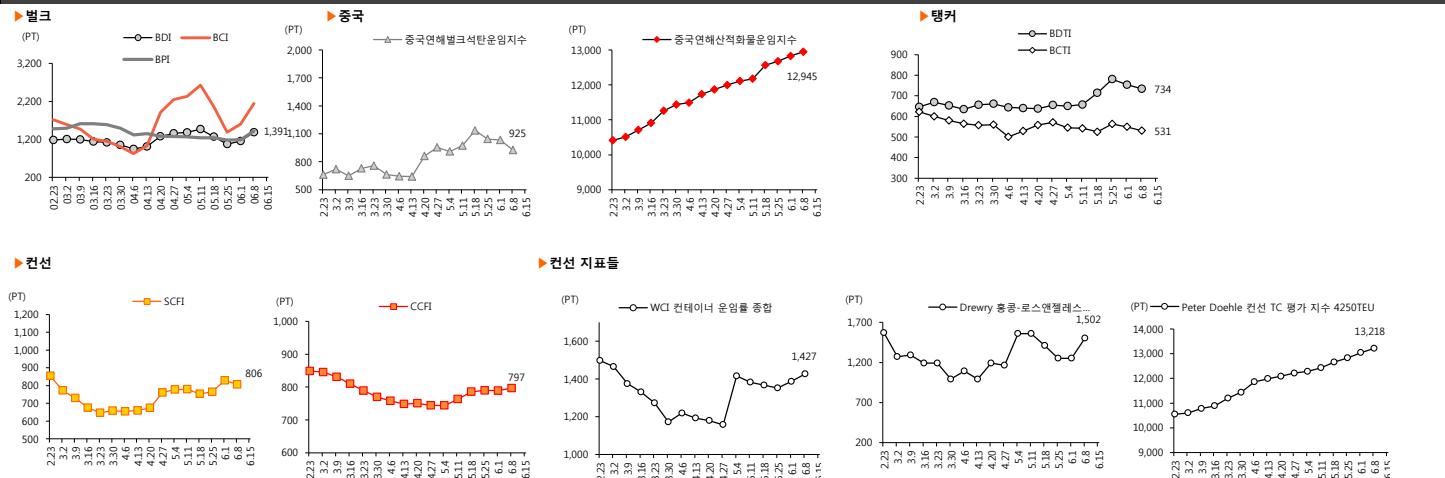
'두산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5일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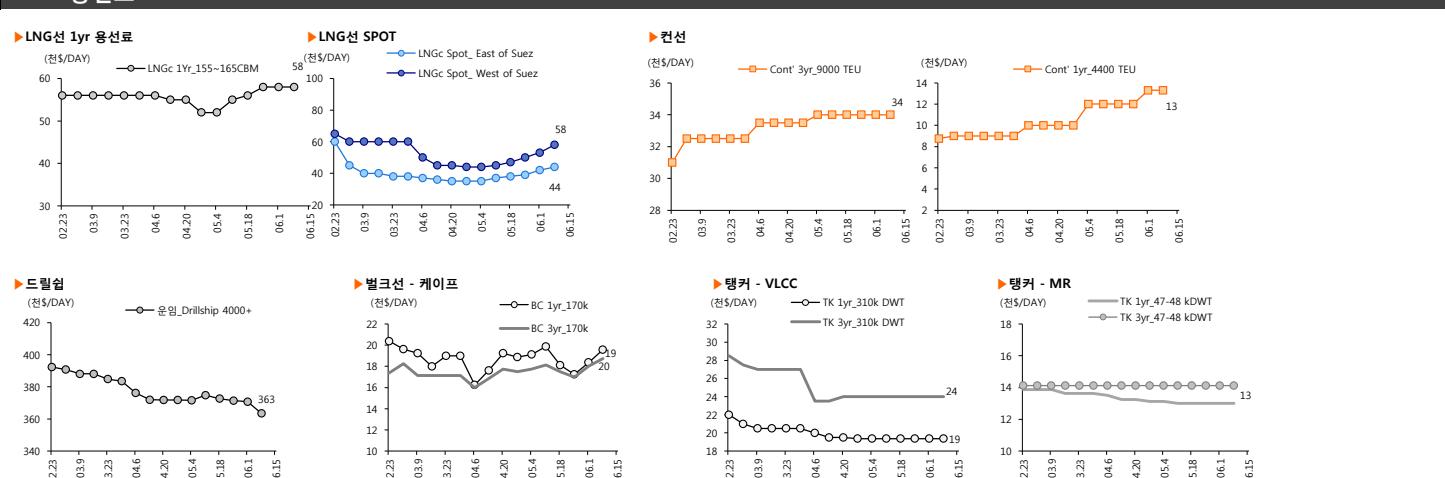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운임지수



옵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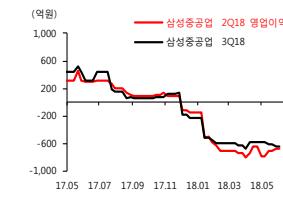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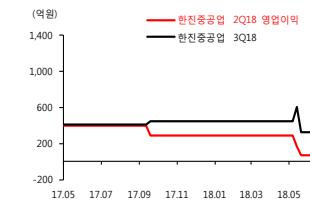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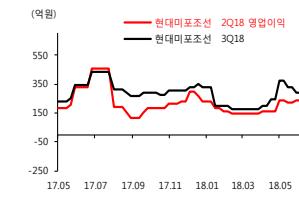
▶ 삼성중공업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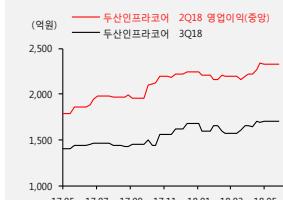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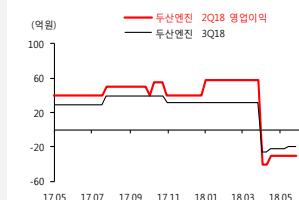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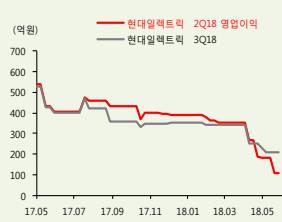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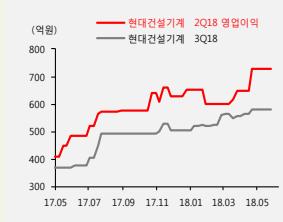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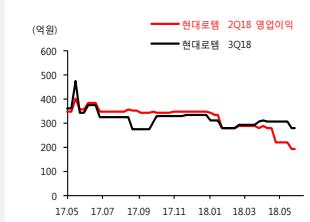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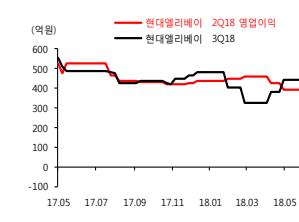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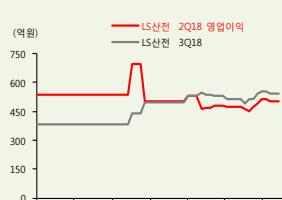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밴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2018 PER	증가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5.12	18.05.19	18.05.26	18.06.02	18.06.0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조선	현대중공업	2,222	444	-1,046	-1,573	-3,232	-3,196	-3,279	-3,143	-3,297	적지	적지	-36.8	121,500
	삼성중공업	-324	-358	-464	-485	-372	-375	-375	-367	-377	적지	적지	-20.2	7,510
	현대미포조선	4,141	3,474	2,347	2,318	5,071	5,949	5,949	7,080	7,080	205%	40%	12.8	90,700
	한진중공업	29	-74	-198	-16	-223	9	-224	-224	-75	적지	적지	-44.7	3,365
두산	두산중공업	1,420	1,403	1,240	1,154	851	851	851	788	750	-35%	-12%	24.9	18,650
	두산인프라코어	1,155	1,175	1,253	1,244	1,467	1,500	1,500	1,500	1,499	21%	2%	6.9	10,400
	두산엔진	83	72	-122	-122	-136	-136	-120	-120	-171	적지	적지	-41.7	7,150
기계	현대건설기계	15,531	16,053	15,369	15,148	13,657	13,657	13,903	13,930	13,906	-8%	2%	11.7	162,500
	현대일렉트릭	10,761	10,969	7,850	7,605	4,899	4,840	4,840	3,111	3,201	-58%	-35%	26.9	86,000
	LS산전	4,803	4,852	4,671	4,537	4,858	4,804	4,817	4,972	4,961	9%	2%	15.3	75,800
	현대엘리베이터	5,603	5,603	4,351	3,609	2,558	2,558	2,541	2,541	2,375	-34%	-7%	49.1	116,500
	현대로템	841	821	757	714	567	567	567	490	467	-35%	-18%	78.4	36,600
방산	한국항공우주	1,627	1,430	1,280	1,228	1,160	1,223	1,297	1,305	1,283	5%	11%	36.1	46,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831	1,672	912	911	583	635	615	621	621	-32%	6%	51.6	32,050
	LIG넥스원	3,873	3,560	2,466	2,313	2,223	2,223	2,223	2,223	2,223	-4%	0%	23.4	52,000
피팅	성광밴드	106	-8	-9	-38	-75	-70	-70	-55	-55	적지	적지	-231.5	12,750
	태광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0%	0%	45.4	13,700
	하이록코리아	1,912	1,765	1,413	1,413	1,504	1,322	1,322	1,297	1,297	-8%	-14%	22.8	2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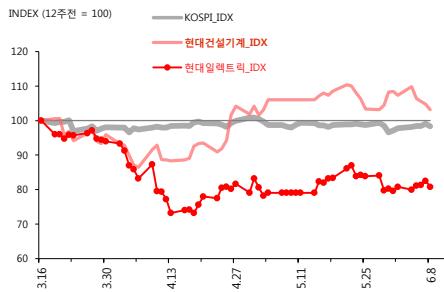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2018	ROE 2019	2018 PBR	증가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5.12	18.05.19	18.05.26	18.06.02	18.06.0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조선	현대중공업	229,279	230,808	241,361	175,029	170,578	169,907	170,189	169,727	-2%	1%	0.7			
	삼성중공업	19,316	19,573	20,494	19,690	12,242	12,386	12,386	12,921	-3%	0%	0.6			
	현대미포조선	132,123	127,187	126,280	121,471	120,394	118,112	118,112	118,347	6%	5%	0.8			
두산	두산중공업	30,258	30,258	29,190	28,884	30,546	30,546	30,546	30,545	28,037	3%	5%	0.7		
	두산인프라코어	11,654	11,539	10,899	10,596	9,840	9,877	9,877	9,877	9,877	15%	15%	1.1		
	두산엔진	7,853	7,947	7,612	7,683	7,683	7,593	7,593	16,017	-1%	0%	0.4			
기계	현대건설기계	128,963	135,467	131,312	135,316	139,230	139,230	139,230	139,230	139,263	10%	11%	1.2		
	현대일렉트릭	111,365	111,776	106,344	111,887	108,257	108,247	108,247	107,159	107,159	3%	7%	0.8		
	LS산전	43,668	43,590	43,099	42,734	42,909	42,835	42,840	42,823	42,915	12%	12%	0.0		
	현대엘리베이터	43,206	43,206	38,338	34,285	32,217	32,217	31,998	31,998	31,998	7%	9%	3.6		
	현대로템	17,452	17,564	16,526	16,557	16,424	16,424	16,424	16,389	16,389	3%	7%	2.2		
방산	한국항공우주	14,389	14,040	12,950	12,897	12,742	12,551	12,548	12,439	12,439	10%	13%	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5,506	45,632	42,105	42,135	41,295	41,295	41,295	41,222	41,222	2%	3%	0.8		
	LIG넥스원	32,603	32,108	29,179	28,414	29,139	29,139	29,139	29,139	29,139	8%	10%	1.8		
피팅	성광밴드	16,328	16,235	16,057	15,972	15,972	15,995	15,995	15,989	15,989	0%	2%	0.8		
	태광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2%	0%	0.8		
	하이록코리아	25,343	25,343	24,832	24,832	24,832	25,123	25,123	25,123	25,123	5%	7%	1.2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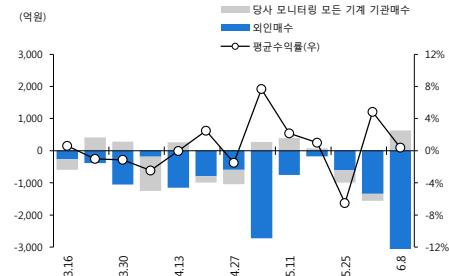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두산밥캣, 분기배당제 도입

<http://lnr.li/mlw0k>

두산밥캣은 7일 이사회를 열고 분기배당을 위해 6월30일 기준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로 결의
연간 1회 실시하던 결산배당을 연간 2회로 분산

▶ 두산밥캣, 인도 백호로더 공장 개소..."5년내 TOP3 목표"

<http://lnr.li/PVEU>

지난달 인도 백호로더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공장 및 부지를 인수
: 인도 백호로더 공장은 부지면적 8만m², 공장면적 1만5000m²로 연간 약 8000대 이상의 제품을 생산
인도 소형 건설기계 시장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미국, 중국 다음: 이중 백호로더 비중은 80~90%
인도 백호로더 시장은 2014년 이후 연평균 9.7%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관계자는 "5년 내 인도 백호로더 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해 Top 3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회사의 중장기 목표"라며 ...
... "과거 중동 백호로더 시장에 진출했을 당시 2년 만에 Top3 자리에 올랐던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고 말

△ LG유플러스-두산인프라코어, 5G 무인 건설기계 개발 '맞손'

<http://lnr.li/ugXsW>

▶ 건설기계 업계, 굴삭기 등 토목 중장비 자동화 기술 경쟁

<http://lnr.li/XSPtK>

앞서 현대건설기계는 스마트 건설의 요소 기술에 속하는 건설장비 원격관리시스템 '하이메이트(Hi-Mate)'를 상용화해 운영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자동 지형 측량 기능(머신 가이던스)이 탑재된 굴삭기를 상용화할 예정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국내 건설기계 업계 최초로 무인차를 기술 개발을 위해 통신회사와 제휴
LG유플러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두산인프라코어는 5G 기반의 건설기계 원격제어 기술을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
기술이 완성되면 수백km 떨어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작업자가 마치 건설기계 조종석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처럼 영상을 보며 작업 수행 가능

큰 기계들

△ 두산중공업, SAP와 MOU...발전플랜트 등 디지털 전환 협력

<http://lnr.li/vzXX7>

5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2018 SAP 사파이어' 행사에 참석해 주최사인 SAP와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중부발전, 민간발전사 3곳과 1000MW급 석탄화력 협약

<http://lnr.li/3YlhJ>

한국중부발전은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포스파워, 두산중공업과 '1000MW급 석탄화력 기술교류 및 예비품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
사업은 국책연구개발 과제로,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건설한 한국중부발전의 1000MW급 신보령화력이 성공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

△ 현대로템, 9000억 대만 전동차 사업 수주

<http://lnr.li/HmcI1>

대만 철도청(TRA)이 발주한 9098억원 규모의 전동차 520량 납품 사업을 따냄
이번 수주 건은 그동안 대만이 발주한 최대 규모 철도차량 사업
현대로템은 1999년 전동차 56량을 수주한 이후 19년 만에 대만 철도 시장에 다시 진출
노후 철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대만은 앞으로 8년간 약 35조원을 투자할 계획

▶ 모간PE, 현대로템 블록딜 물량 늘려 2400억 확보

<http://lnr.li/l88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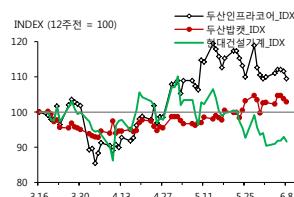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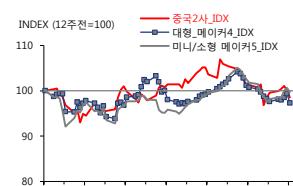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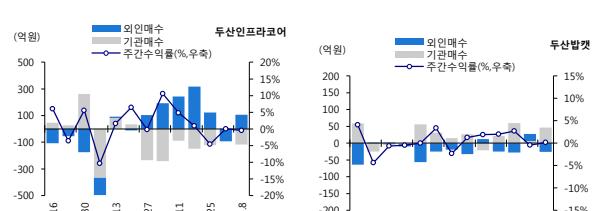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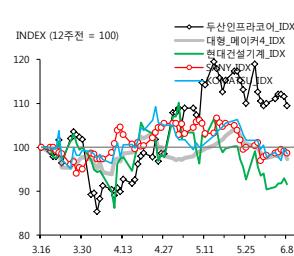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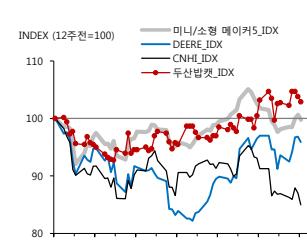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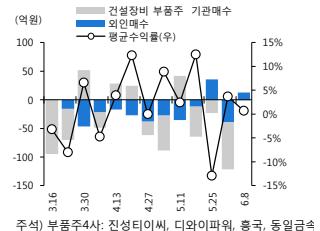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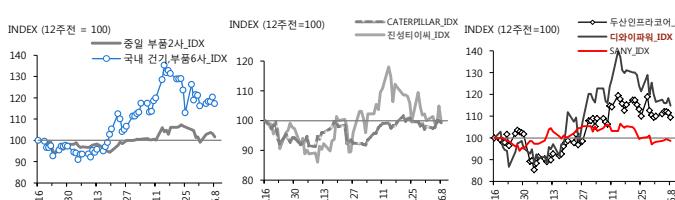
모간스탠리PE는 지난 4일 장 종료 후 현대로템 지분 600만주(지분율 7.05%)에 대한 블록딜 수요예측을 개시
: 할인율은 이날 종가 4만550원에 9.5~13.5%가 적용
가격으로는 3만5000원~3만6700원이다. 거래 규모는 2100억원~2202억원으로 추산
북벌딩에서 주문이 몰려 모간스탠리PE는 매각 수량을 700만주(8.23%)로 늘리고, 할인율은 13.5%로 결정
잔여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Lock-up) 기간은 45일로 설정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블록딜로 모간스탠리PE는 현대로템 지분율을 지난해 말 24.8%에서 3%까지 낮춤
모건스탠리PE는 지난 2013년 현대로템 상장으로 600만주를 구주매출한 이후 공모가(2만3000원)보다 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투자금 회수에 난항
모간스탠리PE는 지난 2006년 현대로템 지분 42.36%를 현대자동차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
>> 400만주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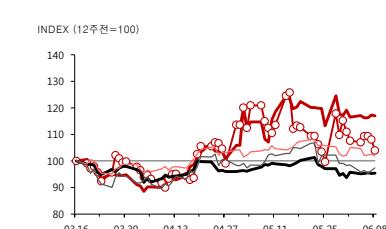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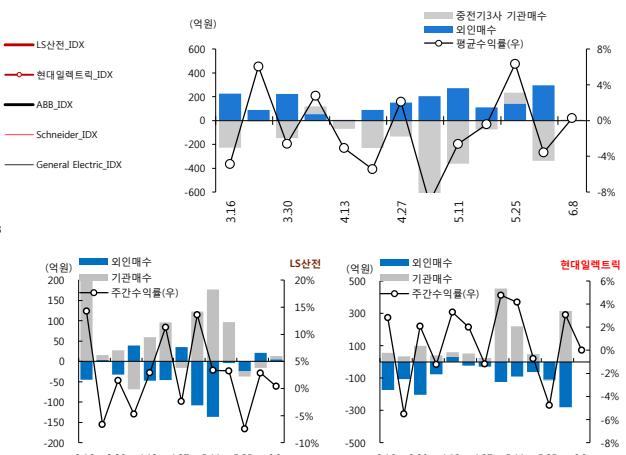

방산/항공
▲ '수리온' 탑본 필리핀 두테르테, 한국헬기 구매검토 지시
<http://lnr.li/f9bOo>

최근 한국을 방문해 기동헬기 '수리온'을 탑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
...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에게 한국 헬기 구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가 7일 보도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말 캐나다 업체와 2억3천300만 달러 규모의 '벨 412' 헬기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
... 캐나다가 필리핀의 인권실태를 문제 삼자 올해 초 계약을 파기
최근 군사력 현대화에 나선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경공격기 FA-50PH 12대를 구매하는 등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
FA-50PH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공동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에 무기를 장착한 경공격기

△ 한국항공우주, 미국 업체와 1천157억원 규모 공급 계약
<http://lnr.li/xIC0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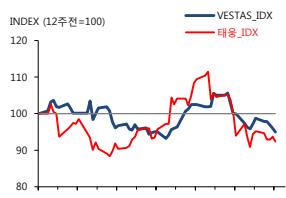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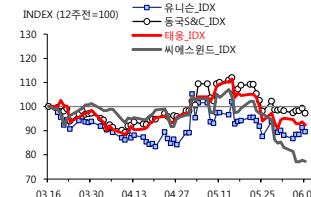
미국 트라이엄프 에어로스트럭처(Triumph Aerostructure LLC)와 B767 FTE(날개부품) 및 Sec.48(후방동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
최근 매출액의 5.6% 규모: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
▶ 한국시장 상장 3사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메이커3사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쓰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 건설장비 부품주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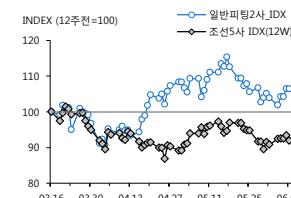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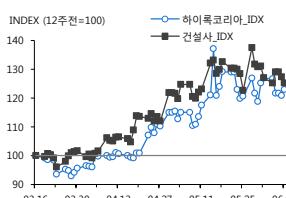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동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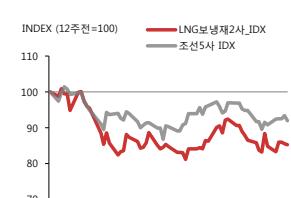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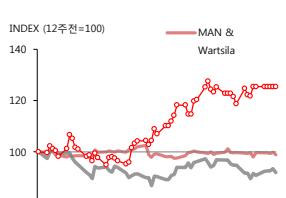

피팅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조선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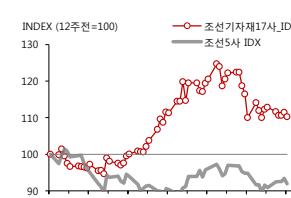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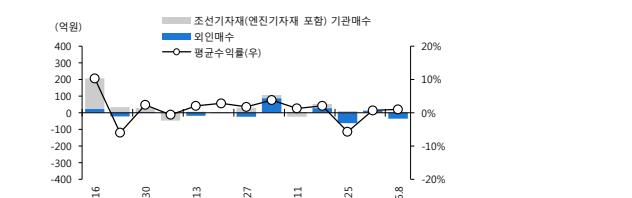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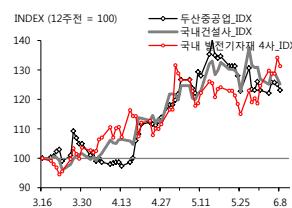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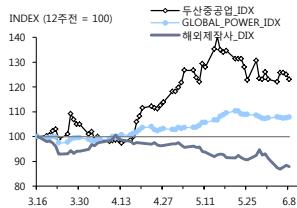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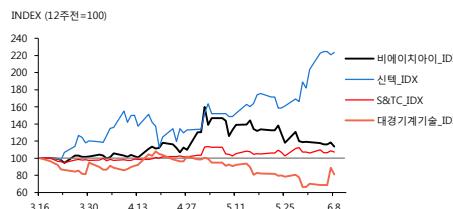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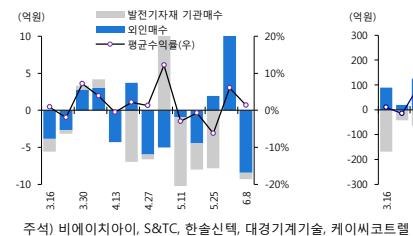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발전기자재 등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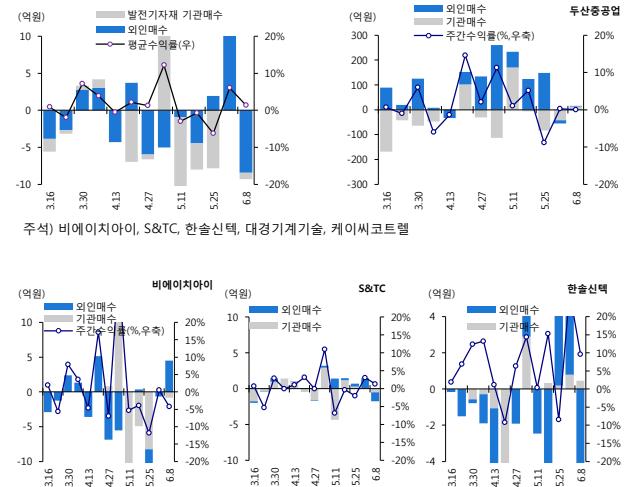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5사(두산중공업 제외)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주석) 비에이치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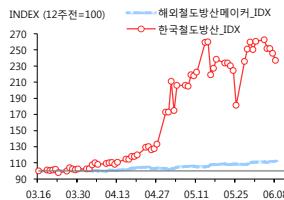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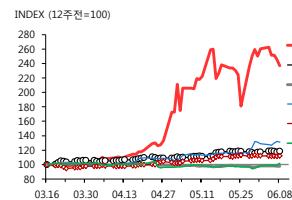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철도/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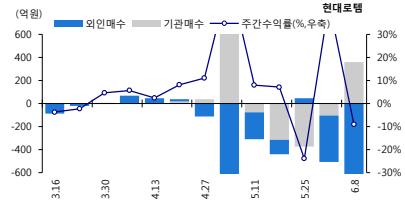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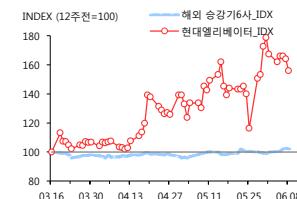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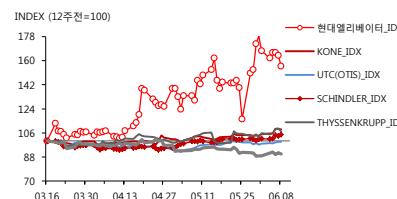


현대로템
현대로템
현대로템
현대로템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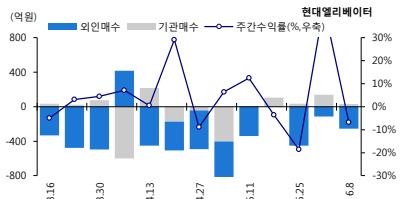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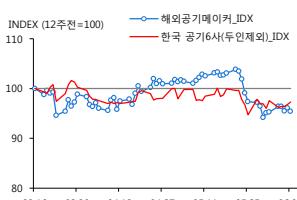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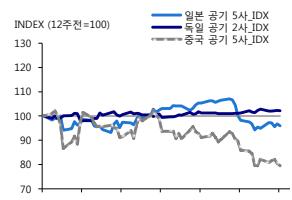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동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 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 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증권 투자동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3-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60%	6.40%	-